

## 겨울 철새 159만 마리 방문 작년보다 25% 더 찾아왔다

울겨울 우리나라를 찾은 겨울 철새가 159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달 15~17일 전국 철새 도래지 200곳에서 겨울철 조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94종, 158만 9835마리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 때 확인된 126만 6638마리와 비교해 24.8% 늘었다.

겨울 철새가 증가한 것은 시베리아 번식지에서 가창오리·청둥오리 등 오리류 개체수가 늘었고 서식 환경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먹이양이 풍부해지고 농경지의 떨어진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종이 크게 늘었다.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전북 고창 동립저수지로 42만 1341마리로 집계됐다. 대부분 가창오리였다. 이어 울산 태화강(10만 1420마리), 삼교호(5만 374마리), 울산 구룡포 해안(4만 4296마리), 금강호(3만 9454마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mailto:skpark@seoul.co.kr)



## 고창 동립저수지 철새 가장많이와

### 42만마리 발견

국내에서 철새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고창 동립저수지로 조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0곳의 철새 도래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기간 동안 발견한 철새는 총 194종 158만9천83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당시의 126만6천638마리(193종)와 비교할 때 24.8%(31만3천197마리) 증가했다. 철새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고창 동립저수지로 42만1천341마리를 기록했다. 동립저수지를 찾은 철새는 대부분 가창오리로 99.7%(42만 마리)를 차지했다.

올해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된 철새는 가창오리로 46만6천587마리가 기록됐으며, 전년대비 15만5천641마리가 증가했다. **2면에 계속**

/김명수기자 kms80@

### 동립저수지 철새 가장 많이와

#### 1면에 이어

이어 청둥오리 22만1천558마리, 폐까마귀 11만3천181마리, 흰뺨검둥오리 10만9천800마리, 쇠기러기 9만1천928마리 등 농경지의 떨어진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종의 개체수가 많았고 이들 종은 전년에 비해 수가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는 총 33종 10만 958마리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조류는 황새, 두루미, 검독수리 등 8종 1천215마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조류는 큰고니, 호사비오리, 재두루미 등 25종 10만9천743마리가 각각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조류인 호사비오리 95마리, 노랑부리저어새 405마리, 재두루미 3천278마리 등이 발견됐다. 이들 종은 최근 10년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수가 관찰됐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철새 번식지인 시베리아에서 개체수가 증가해 가창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류가 늘었다"며 "서식 환경 개선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 찾은 철새 194종 159만마리...가창오리 가장 많아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0곳의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모두 194종 158만9835마리의 철새를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확인한 126만6638마리(193종)보다 24.8%(31만3197마리) 증가했다. 자원관 관계자는 "가창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류가 늘어났다"며 "시베리아 번식지의 개체수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종별로는 가창오리가 가장 많았다. 전년에 비해 15만5641마리 증가한 46만6587마리가 확인됐다.

청둥오리 22만1558마리, 뚝새마귀 11만3181마리, 흰뺨검둥오리 10만9800마리, 쇠기러기 9만1928마리 등 농경지의 떨어진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종의 개체수가 많았다.

전년 조사에 비해 오리류, 기러기류, 두루미류, 갈매기류의 개체수는 증가했으나 고니류의 개체수는 감소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는 총 33종 10만958마리로 확인됐다.

1급 조류는 황새, 두루미, 검독수리 등 8종 1215마리, 2급 조류는 큰고니, 호

사비오리, 재두루미 등 25종 10만9743마리로 조사됐다.

철새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로 42만1341마리를 기록했다. 동림저수지를 찾은 철새는 대부분 가창오리로 99.7%(42만마리)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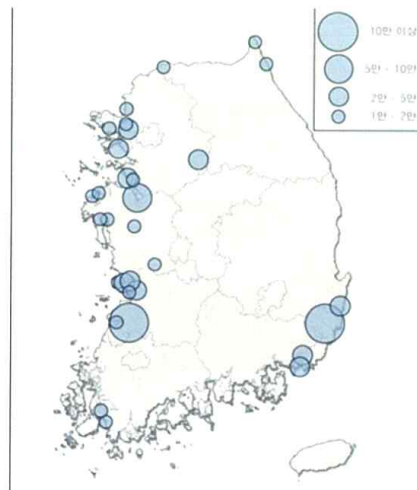
이어 울산 태화강 10만1420마리, 삼교호 5만374마리, 울산-구룡포 해안 4만4296마리, 금강호 3만 9454마리 등의 순이었다. 태화강은 전년대비 철새 개체수가 66.8% 급증했다. 복원사업 등 서식환경 개선으로 떼까마귀가 크게 늘었다.

반면 2001년 당시 17만1202마리가 발견된 시화호는 올해 2만6186마리만 확인됐다. 2000년 7만2108마리를 기록했던 간월호도 1만4371마리가 발견돼 감소 추세를 보였다.

kje1321@newsis.com



## 철새 도래지 1,2위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울산 태화강



철새가 많이 발견된 지역.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News1

국내에서 철새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철새 개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울산 태화강은 두번째로 철새가 많이 찾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0곳의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기간 동안 발견한 철새는 총 194종 158만983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당시의 126만6638마리(193종)와 비교할 때 24.8%(31만3197마리) 증가했다.

김진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장은 "철새 번식지인 시베리아에서 개체수가 증가해 가창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철새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로 42만1341마리를 기록했다. 동림저수지를 찾은 철새는 대부분 가창오리로 99.7%(42만마리)를 차지했

다. 이어 울산 태화강 10만1420마리, 삼교호 5만374마리, 울산-구룡포 해안 4만4296마리, 금강호 3만9454마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된 철새는 가창오리로 46만6587마리가 기록됐으며, 전년대비 15만5641마리가 증가했다. 이어 청둥오리 22만1558마리, 뚝새 11만3181마리, 흰뺨검둥오리 10만9800마리, 쇠기러기 9만1928마리 등 농경지의 떨어진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종의 개체수가 많았고 이들 종은 전년에 비해 수가 증가했다.

전년 조사에 비해 오리류, 기러기류, 두루미류, 갈매기류의 개체수는 증가했으나 고니류의 개체수는 감소했다.

전년 대비 철새 개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울산 태화강으로 66.8% 증가한 10만1420마리가 발견됐다. 특히 뚝새가 전년에 비해 75.4% 늘었다. 태화강은 복원사업 등 서식환경 개선으로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곳이다.

반면 2001년 당시 약 17만1202마리로 정점을 기록했던 시화호는 올해 2만6186마리가, 2000년 7만2108마리를 기록했던 간월호도 올해 1만4371마리가 각각 발견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는 총 33종 10만 958마리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조류는 황새, 두루미, 검독수리 등 8종 1215마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조류는 큰고니, 호사비오리, 재두루미 등 25종 10만 9743마리가 각각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조류인 호사비오리 95마리, 노랑부리저어새 405마리, 재두루미 3278마리 등이 발견됐다. 이들 종은 최근 10년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수가 관찰됐다.

이은지 기자(lej@)

## 국내 철새 도래지 1위 '동림저수지'

### 가창오리 등 42만1341마리

고창 동림저수지가 우리나라 겨울철새가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조사됐다.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은 지난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0곳의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세스'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발견한 철새는 모두 194종으로 158만9835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견한 철새 193종, 126만6638마리에 비해 24.8%, 31만3197마리 증가했다.

철새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고창군 동림저수지로 가창오리 42만마리(99.7%)를 포함한 42만1341마리로 집계

됐다. 이어 군산의 금강호(5위)에서 3만 9454마리, 만경강 중류(9위)에서 2만 3325마리가 발견돼 전국 상위 철새도래지 10곳에 포함됐다.

올해 가장 많은 개체수가 발견된 철새는 가창오리(46만6587마리)로 전년에 비해 15만5641마리 늘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시베리아 번식지의 개체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에 비해 가창오리와 청둥오리 등 오리류가 늘어 올해 겨울철새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홍욱기자